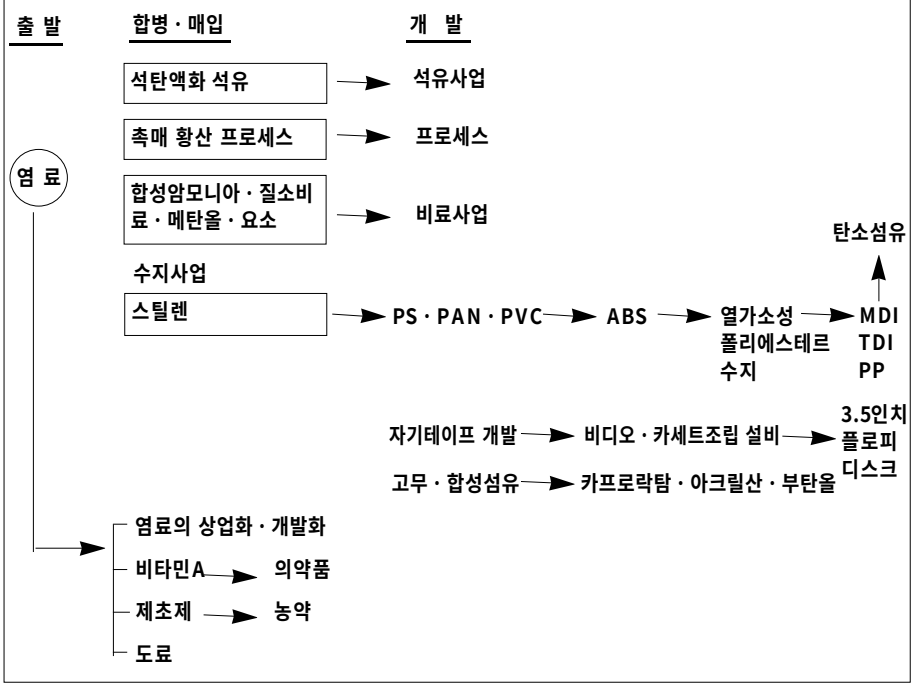
<BASF>

M&A 통한 규모화 "불황시 경쟁력은 약하다!"

독일 화학산업 규모는 유럽 화학산업의 20~25%를 차지하고 있으며, BASF · Bayer · Hoechst 등 3사가 독일 화학시장의 35~40%를 점유하고 있다.
즉 독일 화학 3사의 비중은 유럽에서 절대적이고, 세계 각 지역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이들 3사간의 경쟁도 치열, 독일 화학산업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BASF는 80년대 후반 판매액 및 순이익기준으로 독일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91년 순위가 역전돼 Hoechst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다. 80년대 후반에는 독일 화학3사가 교대로 순이익 1위 자리를 차지해 왔으나 최근 2년간(91~92년)은 Hoechst가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설비투자면에서는 중화학 비중이 높은 BASF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연구개발비는 Bayer · Hoechst 양사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 3사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오늘날 세계적 화학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BASF는 원료부터 화학제품, 플래스틱, 도료 · 자기테이프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BASF의 발달역사를 보면 「원료 중시의 전통」, 「IG시대의 기술 개발」, 「2차 대전후의 재출발과 석유화학 진출」, 「사업 다각화와 국제화 추진」, 「국제화의 신전개」, 「다각화에서 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12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BASF도 90년대 들어 매출 · 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BASF의 화학사업 계열도



발전역사

BASF의 역사는 1865년 자본금 140만글루텐으로 창립한 Badische Aniline und Soda Fabrik(BASF)에서 시작된다.
BASF는 1861년 아닐린 염료의 하나인 훅신 제조 및 소다회를 기초로 본격적으로 염료 사업에 착수했고, 독일의 체계적인 유기합성 화학 연구와 국가 통일에 따른 산업부흥을 배경으로 1860년대 타르염료회사를 설립해 20~30년간 세계시장을 석권했다.

1870년에는 아니잘린 염료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십년간의 개발경쟁끝에 인디고 합성에 성공, 1901년 인던트렌 염료를 시판하게 되었다. 같은 기간 BASF는 액체염소, 접촉법 황산, 식염전해 등 무기화학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게 된다.

또 1913년 하바 보니쉬법으로 공중질소 고정에 의한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 1차대전이후 원료 및 기초부문인 무기화학의 대량 생산이 가능, 화학원료 부문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립했다.

1차대전이후 염료 국산화에 따른 경쟁 격화로 독일 염료산업은 1916년 8개사가 이익공동체(Interessen Gemeinshaft)를 결성, 1925년말 단일 기업인 I.G.Farben-industrie AG로 통합되었고 BASF는 그중 핵심 기업으로 부각되었다. I.G.시대 BASF의 루드빅스하펜 공장은 I.G의 원료 중심지가 되었다.

BASF의 최근 7년간경영 현황 (단위 : 100만DM, %)

구 분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매 출 액	44,522	46,626	46,623	47,617	43,868	40,238	40,471
증 감 률	(▽4.5)	(0.0)	(▽2.1)	(8.57)	(9.0)	(▽0.6)	(▽8.8)
국 내	14,752	16,176	17,687	15,211	14,539	14,476	14,568
국 외	29,770	30,450	28,936	32,406	29,329	25,762	25,903
국외판매률	66.9	65.3	62.1	68.1	66.9	64.0	64.0
세 전 이 익	1,239	2,110	2747	4,384	3,726	2,587	2,627
증 감 률	(▽41.3)	(▽23.2)	(▽37.3)	(17.7)	(44.0)	(▽1.5)	(▽13.6)
순 이 익	615	1,039	1,107	2,015	1,410	1,051	910
설 비 투 자	4,151	4,800	4,456	3,956	3,495	2,758	2,657
(자본참여)	—	—	—	—	—	—	—
연 구 개 발	3,048	2,063	2,069	1,954	1,789	1,613	1,528
(R&D비율)	(6.8)	(4.4)	(4.4)	(4.1)	(4.1)	(4.3)	(3.8)
종`업`원`수	123,254	129,434	134,647	136,990	134,834	133,759	131,468

또 고압 합성화학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에 주력해 합성가스 제조기술, 유동상기술, 석탄수첨에 의한 인조석유의 개발, 메탄올과 요소의 가압합성, 아세틸렌 고압 접촉반응에 의한 각종 유기중간물(부탄올 · 부탄디올 · 아크릴산) 등의 제조 및 PS · PVC · 합성고무 및 카프로락탐 등 고분자화학의 기틀을 완성할 수 있었다.

BASF는 1935년 세계 최초로 자기테이프를 개발했고, 2차 대전후 I.G.가 분할됐다.

이때 BASF는 Hoechst 및 Bayer과는 달리 루루지구의 아우구스테 · 빅토리아 탄광만 확보, 루드빅스하펜 컴플래스만을 보유해 두기업에 비해 다운스트림이 취약한 상태에서 3사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2차대전후 화학산업은 석유화학 · 플래스틱 위주로 성장하게 되는데 BASF는 I.G.시대 이 부분 기술을 축적, 쉽게 유럽 최대의 플래스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BASF는 53년 Shell과 합작해 Row(Rheinische Olfinwerke Gmbh)를 설립, Shell의 Godorf 정유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NCC를 건설, HDPE 및 PS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HDPE기술은 독일에서 독점 사용권을 획득, 약진의 발판이 되었다.

이 기간에도 기술개발에 주력, 신염료 · 합성염료 · 비타민A · 제초제 등 신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염료 및 PS의 생산 · 판매망 구축을 위해 합작사업에 착수했다.

미국의 Dow와 50대50 비율로 합작, Dow Badische를 설립했고 64년 유럽의 앤트워프에 유럽 제2의 컴플렉스를 건설, 세계 진출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다.

60년대 이후 독일시장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 유럽 진출 및 기업매입에 착수, 분업체제의 후유증을 중소기업의 매입 · 계열화로 극복했으며, 65년 유럽 최대 도료그룹인 그라스리트 매입을 필두로 절연도료기업인 베크, 비료회사 렌즈부르그, 화섬회사 후릭스, 의약품기업 노르트마르크 등 전방산업체를 매입, 통합체제를 갖추었다.

69년에는 소규모이나 원유 · 천연가스 및 칼륨 · 암염의 채굴에서 석유정제, 비료산업에 이르는 일관체제를 갖추고 있는 동독의 윈터스하르를 매입, 석유화학 · 비료 · 원료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되었다.

또 기초화학 제품과 우레탄원료 기업인 미국의 와이안도트 케미칼을 매입, 루이지애나주에 종합공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적 우레탄 가공그룹인 엘라스토머/엘라스토그란 그룹을 매입, Bayer이 선점한 폴리우레탄 시장에 신규 진출했다.
이후 염안료와 농약 · 비타민 등 정밀화학 중시방침으로 전환해 체질개선에 주력, 석유위기속의 80년대를 초고속 성장시대로 이끌었다.
75년 중견 의약회사인 크노르를 매입해 의약품 부문을 강화했으며, 70년대 후반 미국 DOW Badische의 완전 취득과 케메트론 안료사업을 매입했으며, 향료 기업인 FDO 및 덴마크의 비타민 공장도 매입했다.
또 EC의 경기 불투명속에서도 78년 30만톤 규모의 에틸렌 플랜트를 완공했다.
그러나 91년에는 10만톤(전체 105만톤)의 에틸렌 플랜트 및 24만톤(100만톤중)의 PE설비를 폐쇄했고, 범용수지에서 엔지니어링플래스틱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70년대에는 원료 · 기초제품의 확보는 물론 고부가가치 및 소비재분야로의 접근도 계속 추진했으며, 국제화 강화가 당시 과제로 대두되었다.

독일의 3대 화학기업 매출현황(1992) (단위 : 100만DM, %)

B A S F					Hoechst					Bayer				
구 분	매 출 액		영업실적		구 분	매 출 액		영업실적		구 분	매 출 액		영업실적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Oil and Gas	6872	1.0	-38	NM	Chemicals/colour	10580	▽4.9	321	▽36.5	Polymers	7198	▽7.5	-3.7	NM
Agriculture Products	4671	▽9.4	45	▽64.5	Fibres	6945	▽3.0	422	▽2.3	Organic products	5472	▽5.1	121	▽14.8
Plastics/fibres	9092	▽4.9	-119	▽138	Polymers	8020	▽6.7	97	▽59.2	Industrial products	7579	▽2.6	275	▽34.7
Chemicals	6699	▽4.2	881	▽14.5	Health	10817	4.1	1259	1.9	Healthcare	8928	1.4	1819	4.8
Dyestuffs/finishing	7638	▽4.8	600	▽13.0	Engineering/tech	6817	▽5.3	11	▽94.3	Agrochemicals	5154	▽3.5	378	▽21.3
Consumer products	8824	▽3.9	-103	129	Agriculture	2691	▽0.9	42	▽76.1	Imaging technology	6864	▽0.9	220	▽25.7
기 타	816	▽17.9	45	▽89.3	EC	30969	▽3.2	1061	▽39.1	Europe	26538	▽4.1	1600	▽27.9
Europe	34057	▽5.2	1318	▽35.2	기타 Eruope	1179	▽4.2	59	▽18.0	North America	8759	▽0.1	620	49.0
North America	7500	▽4.0	-58	▽185	North America	10434	1.2	587	▽6.1	Latin America	1842	▽3.6	116	▽4.9
Latin America	1730	▽1.4	20	▽70.0	Latin America	3129	▽4.5	215	44.3	Asia	3423	0.5	383	3.2
Asia, Australia, Africa	1235	8.2	31	29.2	Africa, Asia, Aust	3665	3.5	230	19.8	Africa	633	▽4.1	57	14.0
합 계	44522	▽4.5	1311	39.8	합 계	45870	▽2.7	2152	▽22.2	합 계	41195	▽2.8	2776	▽12.0

BASF의 종업원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지 역	1990	1991	1992
BASF그룹	116,518	116,646	115,868	114,128	115,816	130,170	131,468	133,759	134,834	136,990	유 럽	102,733	98,831	95,528
국외관계회사	29,145	28,811	28,315	28,035	28,524	41,658	42,017	44,207	46,150	47,826	북 미	20,851	18,913	18,012
국내관계회사	35,061	35,145	35,059	34,268	35,014	35,057	34,817	34,161	33,187	31,817	중 남 미	9,820	9,692	9,274
BASF AG	52,312	52,690	52,494	51,825	52,278	53,458	54,634	56,391	55,497	57,347	아 시`아	652	669	686

국 제 화

BASF는 85년 북미에서의 대형매입으로 본격적으로 국제화에 도전하게 된다.
BASF의 미국사업은 80년대 초에는 정체됐으나 83년 이후의 미국경기 회복과 Dupont의 코메트 매입으로 시작된 석유업계 재편이 다른 산업에도 파급됨에 따라 화학업계에서도 새로운 M&A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84년 식품업계의 재편과정에서 베아트리스케미칼의 매입을 놓고 BASF를 포함한 수개사가 경합을 벌여 ICI가 매입에 성공, BASF는 85년 3월 셀라니즈의 복합재료 3부문(탄소섬유의 Celicon, 프리프레그의 Narmco, 제트엔진 부문의 Quantum)을 1억3500만달러에 매입하는데 성공

했으며, 5월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에서 자동차용 도료 · 인쇄잉크 및 도료 대기업인 인몬트를 10억 달러에 매입했고, 7월에는 네덜란드 Akzo의 미국 자회사인 화학섬유 메이커 아메리칸 엔카를 매입, 86년 BASF의 미국사업 규모는 36억달러에 달했다.
88년에도 캐나다 폴리사의 합성 라텍스 부문을 5억달러에 매입, 북미사업 기반을 다져갔다.

BASF의 주요 기업 매입현황

년도	회 사	국 가	사업분야
1965	Glasurit-Werke M. Winkelmann		도료
1967	Dr. Beck&Co.		전기절연도료, 절연재료
1968	Herbol-Werke Herbig-Haarbaus		도료
	Nordmark-Werke		의료품
1969	Wintershall		석유 · 천연가스
	Wyandotte Chemicals	미국	기초화학품, 우레탄원료
	Elastogran		폴리우레탄
1970	G. Sicgle&Co.		안료
	Kast&Ehinger		인쇄잉크
	Kail und Salz설립		Wintershall의 칼륨 · 탄염부문과 Salzdetfurth 그룹합병
1975	Knoll의 과반수		1982년말 100%, 의약품
1978	Dow Badische		1958년에 Dow Chemical과 50대50으로 설립된 재미 합작사업을 완전취득(화학제품, 섬유 및 원료)
1980	Fritzsche Dodge&Olcott	미국	향료
1982	Grindsted사	덴마크	비타민공장
1985	Celanese	미국	탄소섬유 · 복합재료사업
	American Enka	미국	섬유
	Immont	미국	안료, 인쇄잉크, 자동차도료
	Monsanto	영국	Seal Sands 공장(섬유원료)
1988	Polysar	캐나다	합성라텍스 부문
1989	Resart GmbH		아크릴글래스

BASF는 미국 동해안으로 북미 본사를 이전함과 동시에 생의학연구센터를 보스톤 근교에 건설하고 자동차용 수성 도료 플랜트 건설계획 등 일련의 대형 투자계획을 갖고 있으며, 연간 투자액도 이전의 1억~2억달러에서 89년에는 4억달러, 90년에는 6억달러로 늘려잡아 기업매입에 의한 설비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BASF는 북미사업 확장은 물론 EC시장 통합과 소련 · 동유럽 정세의 급변에 따른 대유럽 시장 상황에 따라 90년대 성장 전망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ASF는 유럽에서는 이미 확실하게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85년 몬산토에서 매입한 영국 쉘산즈 석유화학 (AN · 나일론 중간체 등 합성원료를 생산), 스페인 타라고나 공장 등 4개의 생산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안트워프에서는 연산 60만톤의 에틸렌 플랜트 건설을 계획중으로 90년대 중반에 걸쳐 유럽에서 BASF의 석유화학 · 플래스틱 부문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후반에도 문제분야였던 자기테이프, 석유 · 가스사업, 비료의 3분야중 자기테이프는 AGFA의 자기테이프 사업을 합병하는데 합의했고, 석유사업은 만하임 정유소의 폐쇄, 비료사업의 일부 설비 폐쇄와 생산 집중화에 의한 합리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지역에서의 사업도 최근의 수익저하에 따라 88년 아크릴 섬유사업 철수에 이어 향료의 FDO, 인쇄잉크 사업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독일 재통일에 따른 동독에서의 사업기반과 소련 · 동유럽 시장으로의 접근 및 최근 급속하게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전략의 향방과 함께 90년대 BASF의 글로벌화 전략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다 각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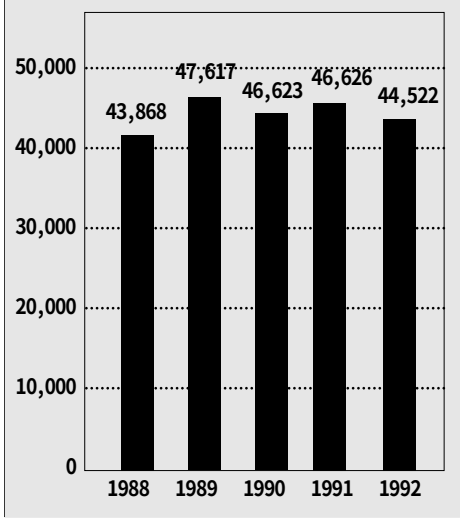
90년대 BASF는 미국에서의 인쇄잉크 및 향료사업, 세계적 인쇄판사업의 처분 내지 매각으로 장기적 안목하에 중심분야와 BASF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분야를 한정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BASF는 다각화가 아니라 여러사업의 통합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된 생산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강화 부문은 의약품 · 농약 및 정보시스템부문으로 기업매입을 통해 성장해 갈 계획이며, 공장입지의 국제화를 강화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최근 BASF는 맥시코의 알타미라에 중요 공업부지를 취득, 스페인의 타라고나에 견줄만한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며 동독의 우레탄기업 슈와르츠하이테의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면에서도 국제적으로 다양화가 진행돼 루드빅스하펜의 연구소를 점차 국제적 연구시설로 보완할 계획이다.

BASF 및 Hoechst의 경영실적(1992) (단위:100만D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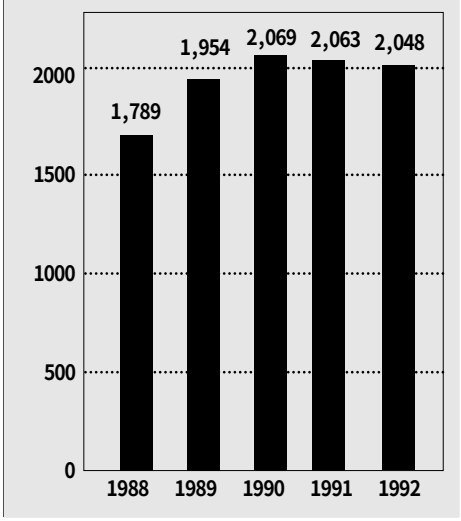
구 분	매 출 액		P B T		순 이 익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BASF group	44522	▽4.5	1239	▽41.2	615	▽40.8
BASF AG	18560	▽9.0	1121	▽24.8	770	▽12.9
Hoechst group	45870	▽2.8	2108	▽17.7	1182	▽12.8
Hoechst AG	15554	▽2.3	939	▽35.7	636	▽22.2

주력사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은 국제기업간의 분업이라는 오늘날의 경향과 합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BASF는 1800년대 중반이후 염료를 개발 상업한 이후 범용 석유화학은 자체 기술개발 또는 합작형태로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염료를 꾸준히 개발 하면서 합병 · 매입을 통해 도료 · 농약 · 의약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재인 자기테이프사업에 참여, 자체 기술개발 또는 합작형태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진행해 왔다.
이외 초기의 비료사업도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BASF는 범용 화학제품의 기술개발 및 합작에 주력했으며, 스페셜티는 기술개발속에서도 기업매입을 통해 신속한 성장을 꽤해 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BASF는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해외투자 확대 및 시설확장으로 글로벌화를 꽤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 및 북미사업 통합을 위해 BASF Corp을 설립했고, 동유럽 · 중국 · 미국 등지의 투자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ASF의 매출액 추이 (단위 : 100만DM)



BASF의 R&D비 추이 (단위 : 100만DM)



경영현황

BASF그룹의 92년 매출액은 445억2200만DM로 91년대비 4.5% 감소했으며, 경상이익은 13억1100만DM로 3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3대 화학기업중 Hoechst는 92년 매출액이 458억7000만DM로 91년대비 2.7% 감소했으며, 경상이익은 21억5200만DM로

22.2% 감소했다.

Bayer의 매출액은 411억9500만DM로 91년대비 2.8% 감소했으며, 경상이익은 27억7600만DM로 12.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BASF는 독일 3사중 92년의 판매 및 수익면에서 감소폭이 커 경영 상태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판매액은 Hoechst가 1위로 부상했고 BASF · Bayer이 뒤를 쫓고 있다.

BASF는 90년 매출액이 466억2300만DM로 Hoechst 448억6200만DM, Bayer 416억4300만DM에 비해 높았으며 최근 몇년간 1위자리를 고수했었고 Hoechst 2위, Bayer 3위 순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91년 Hoechst 471억8600만DM, BASF 466억2600만DM, Bayer 424억100만DM로 BASF가 Hoechst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91년 경상이익은 Bayer이 27억7600만DM로 1위, Hoechst가 21억5200만DM로 2위, BASF는 13억1100만DM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익면에서 BASF와 Hoechst를 비교하면 92년 BASF는 6억1500만DM, BASF AG가 7억7000만DM으로 91년대비 각각 40.8%,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Hoechst는 순수입이 11억8000만DM, Hoechst AG는 6억3600만DM으로 각각 12.8%, 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그룹간 순익을 비교하면 Hoechst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기업간 순수입규모는 BASF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 증감폭은 BASF Group의 감소률이 40.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올해에도 수요정체 및 고정비 증가에 따른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 마르크의 평가절상도 악영향을 미쳐 올해 두달동안 판매고는 바닥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불경기속에서 BASF Group의 매출규모도 올 1~2월에 10% 감소했으며 BASF AG는 11%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Bayer은 8%, Bayer AG는 11% 감소했으며, Hoechst는 해외판매 2%, 내수판매 15% 등 전체적으로 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BA-SF그룹의 경영위기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화학산업중 감소폭이 심한 분야는 의약품 및 농약으로 의약품은 올들어 가동률이 40%에 머물렀는데, 이는 독일 약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농약부문의 낮은 가동률은 유럽시장의 농작물 보호용 농약사업이 계속 부진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3사의 올해 가동률은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70% 수준에 머무는 최악의 사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ASF그룹의 판매구성 추이 (1980~1992) (단위 : 100만DM)

사업분야	사업부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원료·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중유, 모터오일, 윤활유, 난방유, 역청탄	6,782 (15.2)	6,715 (14.4)	6,237 (13.4)	5,752 (12.1)	5,672 (12.9)	5,738 (14.3)	6,280 (15.5)	8,990(2 0.3)	8,159 (20.2)	7,240 (20.6)	7,101 (21.8)	6,976 (22.0)	6,124 (22.1)
화학품	기초화학품, 촉매, 공업화학품, 중간물, Fine Chemical, 섬유원료	6,699 (15.0)	6,991 (15.0)	7,276 (15.6)	9,729 (20.4)	9,036 (20.6)	8,237 (20.5)	8,251 (20.4)	8,204 (18.5)	7,564 (18.7)	7,109 (20.2)	6,449 (19.0)	6,525 (20.5)	5,247 (12.9)
농업용화학품	칼륨, 복합비료, 특수비료, 사료, 첨가제, 작물보호제, 성장조절제	4,671 (10.5)	5,157 (11.1)	5,005 (10.7)	5,104 (10.7)	4,782 (10.9)	4,915 (12.2)	5,208 (12.9)	6,593 (14.9)	6,441 (15.9)	5,447 (15.5)	5,149 (15.9)	5,235 (16.5)	4,668 (16.8)
플래스틱	폴리올레핀, PVC, 스티렌계 수지, PU, 발포플래스틱, 복합재료, 엔지니어링 재료, 완성부품	9,092 (20.4)	9,564 (20.5)	9,539 (20.6)	8,645 (18.2)	7,996 (18.2)	6,689 (16.6)	6,291 (15.5)	6,686 (15.1)	6,340 (15.7)	5,310 (15.1)	4,683 (14.4)	4,758 (15.0)	4,647 (16.2)
염료·마무리제	염료, 안료, 프로세스화학품, 피혁용 화학제품, 계면활성제, 특수화학품, 디스퍼션, 접착제원료	7,638 (17.2)	8,020 (17.2)	8,182 (17.5)	8,711 (18.3)	7,657 (17.5)	6,527 (16.2)	6,350 (15.7)	6,709 (15.1)	6,456 (16.0)	5,139 (14.6)	4,633 (14.3)	4,424 (13.9)	3,879 (14.0)
소비자용제품	도료, 감광성수지인쇄판, 오디오·비디오제품, 컴퓨터 매체, 의약품 및 원료	8,824 (19.8)	9,185 (19.7)	8,875 (19.0)	9,676 (20.3)	8,725 (19.9)	8,132 (20.2)	8,091 (20.0)	7,195 (16.2)	5,486 (13.6)	4,866 (13.9)	4,461 (13.7)	3,848 (12.1)	3,171 (11.4)
기타		816	994	1,509										
합계		44,522	(46.626)	46,623	47,617	43,868	40,238	40,471	44,377	40,400	35,111	32,486	31,766	27,731

영업현황

지난해 BASF의 사업중 판매액이 증가한 분야는 오일 · 가스 부문으로 총 68억7200만DM(전체의 15.2% 차지)를 기록, 91년대비 1.0% 증가한 것이 유일했다.
이외에는 모두 감소해 농약부문(10.5% 차지)은 46억7100만DM로 9.4% 감소했으며, 플래스틱/섬유부문(20.4%)은 90억9200만DM로 4.9%, 일반화학(15.0%) 66억9900만DM 4.2%, 염료/마무리재(17.2%) 76억3800만DM 4.8%, 소비재(19.8%) 88억2400만DM 3.9%, 기타 8억1600만DM로 17.9%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상이익은 소비재를 제외하고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오일 · 가스 부문의 경상이익은 판매액 증가에도 불구 3800만DM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농약부문은 4500만DM로 91년대비 64.5% 감소했고, 일반화학부문이 8억8100만DM로 14.5%, 염료 · 마감재 부문이 6억DM로 13.0%, 기타 4500만DM로 89.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플래스틱 · 섬유부문은 1억1900만DM의 적자를 기록해 91년대비 13.8% 감소했으며, 소비재부문은 1억300만DM의 적자를 기록하고도 91년의 적자폭이 지나치게 커 92년에는 129%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 · 가스 부문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높은 석유세 부가에 따른 가격인상에 기인하며, 이외 천연가스 및 기타 석유가스부문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ASF는 미국에서 영업중인 오일 · 가스부문과 관련한 부과금 및 정유부문의 마진 불충분으로 이 부문 수익이 적자로 전환, 91년 대비 무려 3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부문은 새 프로세스를 채용해 확장 공사를 끝낸 천연가스 사업이 장기적으로 수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SF는 92년 10월이후 Stegal천연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동독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Midal 장거리 파이프라인과 Rehden 가스탱크는 93년 3/4분기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약부문의 매출액 감소는 서유럽의 농업부문 기술혁신으로 농약 수요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종자보호제 등은 기후에 따라 수요가 좌우되고 있다.
비료부문은 동유럽 수입제품과의 경쟁이 치열, Kail und Salz는 CIS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낮은 달러 환율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 많은 시장을 이들 국가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BASF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Mitteldeutsche Kali AG와의 합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래스틱 · 섬유부문의 가동률 및 수요는 저조한 상황이며, 가격은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범용 플래스틱 · 컴포지트 · 섬유의 수익이 크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BASF는 경쟁력 있는 플래스틱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미국 최대 PS시장 점유률을 확보하고 있는 Mobil Chemical을 인수, 세계 최대 PS기업으로 부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BASF는 경쟁력이 약한 플래스틱 관련 사업부는 과감하게 정리해, 수지 가공재사업부는 매각하고 미국 Rock Hill소재 탄소섬유공장을 93년 중순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북미 섬유사업도 건축 · 자동차 · 섬유산업 위축에 따른 수요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저조, 폴리에스터 섬유공장은 매각하고 나일론 섬유부문의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유럽내 폴리스틸렌 수요감소에 따라 93년 1월 Ludwigshafen 소재 2~3개 PS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화학부문은 다른 사업부문에 비해 영업이익 감소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화약부문에서는 암모니아 및 크래커부문의 수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섬유용 중간화학제품 가격은 수요감소에 따라 지난해 4/4분기 이후 크게 하락했으며, 산업용 화학제품 매출규모는 91년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BASF는 일반 중간체는 물론 수익 향상이 기대되는 정밀화학제품 개발 및 시장개척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료 및 마감재 부문은 BASF 영업이익중 두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지속적인 가격인상

및 판매에 실패, 91년 대비 13.0% 감소했다.

BASF 연혁표

연 도	사 업 현 황
1865	창립
1870	아리자린염료 기업화, 메틸렌 블루(1877, 최초의 국제특허)와 훠스트 레드 · 올라민 등 염료 시판
1888	촉매황산 프로세스 개발
1890	합성인디고 시판
1901	최초의 인던스렌염료「인던트렌」블루 RS발매
1908	암모니아의 고압촉매 활성법(Harber-Bosch법)의 공업적 개발에 착수
1910	암모니아 합성용 고효율 촉매발견
1913	합성 암모니아에 의한 질소비료 생산
1922	고압기술의 응용에 의한 메탄올 및 요소의 공업적 합성
1924	유동상(Winkler법)에 의한 미분탄의 가스화, 석탄액화 및 석유수소 분해의 시험연구
1927	최초의 화성비료 Nitrophoska 공업생산
1928	레페화학으로 알려진 기압화의 아세틸렌 접촉반응의 연구개시
1929	최초의 스티렌 공업적 합성
1930	PS, PAN, 폴리아크릴레이트의 공업생산 개시, 이에 이어 폴리이소부틸렌, PVC, 각종 공중합수지, 요소포름알데히드 축합제품등의 폴리머 공업화
1935	자기테이프 개발, 프탈로시아닌 · 블루생산 개시
1940	Buna 고무의 대규모 설비건설, 합섬 · 나일론수지용 카프로락탐과 나이론염의 양산
1941	폴리에틸렌용 고압 관상로 개발
1950	황산제조용 유동상 프로세스
1953	ROW(독일 쉘과의 합작)설립으로 독일 최초로 석유화학 생산
1956	카프로락탐의 경제적 제법을 가능하게 한 히드록실아민 합성
1958	Dow Badische Co.를 Dow와 합작으로 미국에 설립, BASF제법에 의한 아크릴산, 아크릴에스테르, 부탄올 및 카프로락탐 공업화
1960	합섬용 염료 Palanil 및 Basacryl
1963	비타민 A의 새로운 공업적 합성, 비트용 선택성 제초제 Pyramin
1964	BASF Antwerpen NV설립, ABS수지 Terluran 생산개시
1965	Glasurit Werke 매수에 의해 도료 진출
1966	Dow Badische 합섬사업에 활동확대, Willstatt 자기테이프 공장가동, 면 · 폴리에스테르 혼방용 염료발매
1967	기상법 PP Novolen
1968	의약품 부문 설립. Nordmark-Werke 취득, Nylonprint 감광성 수지인쇄판
1969	Wintershall 합작에 의해 석유화학 원료확보, 미국 Wyandotte Chemical의 98% 이상 취득, Elastomer/Elastogran그룹에 자본참가, PU 진출
1970	비타민 A 및 E 양산개시, 암모니아 일산 1100만톤, 메탄올 700만톤의 대형플랜트 가동, Ultraform(Degussa와의 50대50합작)에 의한 폴리아세탈제조 설비가동
1971	최초의 침투성 살균성 Calixin, Ultradur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 수지
1974	Basagran 선택성 제초제
1975	BASF Antwerpen이 MDI 생산개시
1977	프로필렌법 아크릴산 플랜트가동, BASF의 신기상법에 의한 PP생산
1978	면 · 폴리에스테르 직물용 염료발매
1981	Ludwigshafen 공장에서 스팀 · 크래커가동, Knoll이 미국에서 심장병 치료제 Isoptin을 발매, 칼슘길항제
1982	비타민, 향료성분의 시트랄을 독자제법으로 석유화학 원료에서 생산, Ettenheim/Baden에서 비디오 · 카세트 조립설비 가동
1983	대두, 면화용에 유효한 제초제 Poast발매
1984	동유럽에 대한 최초의 투자로서 헝가리에서 우레탄원료 합작사 설립
1985	중국 고비사막에 TDI 플랜트 · 건설
1986	북미사업을 통합, BASF Corp. 설립, 브라질 Manaus자유무역 지역에 AV 카세트설비 건설
1987	식물유에서의 미생물학적 프로세스로 비타민 B_2를 제조, 의약, 사료첨가제로 사용 Ludwigshafen의 석탄화력 중앙발전소에서 탈황 설비 가동.
1988	90년대에는 탈질 플랜트도 추가 가동.
1989	미국에서 富士사진필름과 합작으로 3.5인치 플로피디스크 설비건설, 미국 Rock Hill SC에 탄소섬유 신라인 가동, MMA 생산 개시, 아크릴글래스 2개사 매입

BASF는 이부문에서 섬유 · 피혁용 화학제품 · 안료 등을 취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특히 고전한 품목은 아크릴모노머로 공장 신설 및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부터의 수입증가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었다.

분산제는 수요가 다소 증가했으나 수익이 감소했으며 스페셜티 화학제품에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재부문에서는 마그네틱 미디어 사업부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팅 · 페인트 부문은 가격상승으로 판매 및 수익면에서 정체 양상을 보였다.

코팅 · 페인트 사업이 프린트 시스템 적자를 상쇄시켰으며, 의약부문은 91년대비 수익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BASF의 수익향상에 크게 기여한 주요 분야는 3분

야로 축약되는데, 적자를 기록한 9개사는 BASF Antwerpen, BASF Magnetics, BASF Plc(영국), BASF Schwarzheide, Kali und Salz, BASF Corp(US), BASF Brazileira, BASF France, BASF Japan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영업이익은 유럽에서 얻어지고, 70%는 BASF AG가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ASF그룹의 최근 10년간 부문별 매출구성비는 오일 · 에너지가 80년 22.1%에서 89년 12.1%로 비중이 낮아져 성장률이 연평균 마이너스 6.1%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간은 90년 13.4%, 91년 14.4%, 92년 15.2%로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화학제품은 최근 10년간 구성비가 80년 12.9%에서 89년 20.4%로 크게 높아져 연평균 85.7%로 높은 성장 속도를 보였으나, 최근 3년간은 15.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또 농화학부문은 80년 16.8%에서 89년 10.7%로 낮아져 연평균 10.1%의 성장에 그쳤고, 플래스틱부문은 80년 16.2%에서 89년 18.2%로 다소 늘어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5.9%로 나타났다. 92년 구성비는 20.4%로 80년대에 비해 높아졌으나 매출은 감소세를 보여, 수량면에서는 규모화를 이루었으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염료 · 마무리제 부문의 매출액 구성비는 80년 14.0%에서 89년 18.3%로 확대돼 평균 124.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빠른 성장 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92년에는 구성비가 17.2%로 다소 낮아졌다.

또 소비용품의 구성비는 81년 11.4%에서 89년 20.3%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205.1%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92년 구성비는 19.8%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최근 1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이룬 부문은 오일 · 가스부문으로 이 부문 비중이 감소했고, 일반화장품 · 플래스틱부문의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며 염료 · 마무리재 · 소비자용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3/6/1>